

# 축 사

## 제52회 완도군민의 날 기념식

‘23. 5. 31.(수)11:00 / 문화예술의 전당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입니다.

52주년 완도군민의 날을, 5만 군민, 그리고 건강의 섬 완도까지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기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서 내외빈 소개가 되어 재차 거명(擧名)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라며 축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경사스런 날! 명예로운 군민의 상을 수상하신  
한일고속 **강혁순** 이사님께는 그동안 쌓아 오신 공적에 경의를 표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뜨거운 관심과 열정적인 완도사랑을 실천하신 공적으로  
명예 군민으로 선정되신 가수 **박영탁**님, 안성시청 **노광춘** 감독님,  
아진산업 **서중호** 대표님, **정연우** 대대장님께도 축하드리고 명예군민이  
되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도군민들은 여러분을 영원히 기억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며,  
언제, 어디서나 완도군의 든든한 서포터가 되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도군의회는 완도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완도군  
을 사랑으로 서포터 해 오신 영광의 얼굴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  
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에 맞이하는 완도군민의 날은 그 어느 해 보다 뜻깊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지난 3년전 인류에게 불어닥친 코로나19 감염병이 누그러들자 우리군에는 48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섬 주민들은 또 한번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위기에 강한 우리 주민들은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내고 각종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장보고 후예다운 저력을 보여주면서 선 두 번째 군민의 날은 즐거움이 배가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땀과 눈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굳건히 하면서 의미 있는 완도군정사를 함께 써오신 주민여러분을 더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로, 금년 5월은 완도의 계절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것이며 우리 주민들의 자긍심이 충만했던 기억에 오래 남을 위대한 계절로 생각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52주년 완도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큰 뜻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군민의 상 수상자와 명예군민 여러분을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중심으로 기원하면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완도군의회 의장 허 중 희